

목포시 해안선 8개권역 국제 해양관광도시 개발 착수

2030년까지 중장기 발전 전략 마련 개발 방식·특화 전략·재원 등 용역 건축·관광 등 전문가 참여 자문단도

목포시가 오는 2030년까지 해안선 8개 권역을 '체류형 국제 해양관광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한다.

시는 '2030 목포시 해안선 주변개발 마스터플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해안선 주변개발'은 기존 사업과 달리 해안선 전체를 포괄하는 거시적인 접근 방법으로 개발에 나선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본계획 용역에서는 목포시 해안권 통합 발전계획을 세우고 권역별 특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목포시는 목포 해안권 전역을 대상으로 오는 2030년까지를 아우르는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1월 용역 업체에 ▲목포 해안선 마스터플랜 장기 비전 제시 ▲해안선 주변 개발 계획 수립 및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 ▲권역별 핵심 거점 특화방안 제안 ▲친수공간 조성 등을 위한 지침 제시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가 중·장기 계획 및 정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등 국비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 가능한 방안을 도출할 것을 요청했다.

기본계획은 해안선 8개 권역으로 분류해 수립한다. 또 권역별 핵심 거점 특화 전략 수립, 해안 공간 개발 사업 추진 방식, 재원 마련 방안 등도 구체화한다.

8개 권역에는 ▲하당·신도심(제일아파트~평화광장 끝) ▲갯바위문화타운(갯바위보행교~남행배수지) ▲남항(남항배수지~성광조선) ▲삼학도(성광조선~구해경부두) ▲내항 및 서산·온금(동명동사거리~조선내화) ▲대반동(조선내화~해양대학교) ▲북항(해양대학교~노을공원) ▲삼진항(노을공원 끝~삼진항~방망이섬) 등이 포함된다.

앞서 목포시는 지난해 12월 총괄부서, 사업부서로 구성된 특별전담조직(태스크포스)을 구성해 시책 발굴과 방향 설정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목포시는 기본계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건축·관광 등 다방면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해당 권역 주민과 시민 의견을 듣고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2030 목포 해안선 주변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목포시가 체류형 국제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침서일 뿐만 아니라 해양관광·레저산업 육성의 기준선을 삼겠다는 자세로 해안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목포시는 오는 2030년까지 해안선 8개 권역 전체를 아울러 개발하는 '2030 목포시 해안선 주변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선다. 동명항 전경. <목포시 제공>

조선 수군 본영 자리 완도 고금도에 이순신기념관 개관

50억원 투입 전시관·체험 공간

개관 기념 충무공 활동 특별전시

아산과 남해 등지에 이어 완도에도 이순신기념관(사진)이 문을 열었다.

완도군에 따르면 임진왜란·정유재란 당시 조선 수군 본영이 설치됐던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에 이순신기념관이 개관했다.

이순신기념관은 조선 수군의 역사적인 공간인 묘당도의 가치를 알리고,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됐다.

총사업비 50억원이 투입돼 1층에 기획전시관·영상관·사무실·체험 공간, 2층에는 상설 전시관이 마련됐다.

개관 기념으로 기획전시관에서는 1598년 위태로운 조선을 구하기 위해 결성된 조선과 명나라 연합수군의 활동을 소개하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영상관에는 '이순신, 나라를 구한 불패의 영웅'을 주제로 고금도에 삼도수군통제영을 설치하고 고금도해전과 노랑해전을 승리로 이끈 전투 장면 등을 볼 수 있다.

상설 전시관은 이순신 장군의 활동상을 재조명



하는 '이순신관'이며 고금도를 중심으로 전시 내용을 구성·연출해 타지역 이순신기념관과 차별화했다.

완도군은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 사업과 함께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 수군이 정유재란에서 승리한 고금 덕동리 일대에 '고금 역사 공간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개관 기념사를 통해 "이순신기념관이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과 고금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이 완도가 해양역사·문화 관광지로 도약하는 데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남군, 70세 이상 면허증 반납 20만원 준다

해남군이 교통사고 예방·감소를 위해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해남사랑상품권 2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인센티브 지원 대상자는 70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해남인 운전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0일까지며, 거주지 면사무소 또는 해남경찰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반납 시 모든 운전면허를 반납한 운전자인 인센티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해남군에서는 2019년부터 지난 4년간 311명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 지원을 받았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고령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치명률이 높아 운전 시 신호 및 과속 등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해남군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소지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신안군 수산자원 회복

흑산면 오리 등 7개 지선에

전북 17만 1000마리 방류

신안군이 연안해역의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최근 흑산면 오리 등 7개 지선에 전북 17만 1000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전복은 각각 4cm 이상이며, 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염병 검사를 마친 건강하고 활력이 좋은 종자이다.

방류는 전복 성장에 최적의 여건을 갖춘 해조류가 풍부하고 해적생물(불가사리)을 제거한 암초해역에서 어업인(해녀 동원)들과 함께 실시됐다.

전복은 방류 후 재 포획율이 93%로 수산종자 방류 품종 중 제일 높은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로부터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이번 방류를 통해 수산자원 회복과 함께 어촌계(어업인)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안군은 이날 중순계 해삼 서식기만 조성이 완



료된 지구(자연석 투석)와 해삼의 성장과 서식처로 최적의 조건을 두루 갖춘 흑산면 다물도 등 18개 지선에 어린 해삼 88만 3000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올해부터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 5개년 계획에 따라 본격 추진 중인 비금 노대도 해역(취노래미 50억), 하의 옥도-안좌 사치해

역(조피블락 40억)에 인공어초 투하, 수산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 회복·증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신안군은 지금까지 전복, 해삼, 감성돔 등 총 44종, 3738만 9000마리의 수산종자 방류와 4만 1058개의 인공어초를 투하,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신안=이성선 기자 sslee@

신안군, 기상 악화로 흑산홍어축제 8일로 연기

9일까지 이틀간 다채로운 행사

신안군이 당초 5~6일까지 흑산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3년 흑산 홍어축제'를 8~9일로 연기해 개최한다.

당일 비와 함께 2~4m 높은 파도 등 기상악화로 흑산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이 통제될 것으로 예상돼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부득이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8일부터 시작되는 흑산 홍어축제는 홍어 비빔밥 만들기 등 시식행사와 '홍어잡이 어선 풍어제, 흑산도 아가씨 노래자랑, 흑산홍어 깜짝 경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신안군은 5월 흑산도 홍어축제를 시작으로 강다리, 낙지, 6월 병어, 밴댕이, 간제미, 8월 민어, 9월 왕새우, 불불락, 우럭, 10월 새우젓 등 계절 시기에 맞춰 신안 정정 수산물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안=이성선 기자 sslee@kwangju.co.kr



강종만(가운데) 영광군수와 자문위원들이 지난 2일 '2030 영광군 신성장 동력 발굴 용역 2차 중간 보고회'를 열고 사업안을 논의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신성장 동력 발굴 용역 중간 보고회

5개 분야 17개 핵심사업 제시

영광군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 2차 중간 보고회를 열고 5개 분야 17개 사업안을 후보에 올렸다.

군은 지난 2일 강종만 군수와 군의회 의원, 실과 소장,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군 신성장 동력 발굴 용역 2차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장석주 호남대학교 교수 등 33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지난해 기준 영광 인구는 5만 2000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았던 1969년(16만 3000명)보다 11만 명이 급감한 상태다.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소득 성장 기반을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성장 동력 사업을 발굴하기 시작했다.

이날 2차 보고회에서 박용희 광주전남연구원 정책지원단장은 5개 분야 17개 핵심사업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자율주행 농기계 활용 지능형 팜단

지 구축 ▲주민참여형 에너지자립 (RE100)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탄소제로 유기농산업복합 서비스 지원 단지 조성 ▲영광 민물장어 융·복합화 (6차 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이 포함됐다.

앞서 광주전남연구원이 주민·전문가 9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광 미래 발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고령화(28%)와 인구감소·저출산(23%) 등을 꼽았다. '미래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분야'와 '영광군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예산 투자' 항목으로는 각각 '기업투자유치'(22%)와 '관광·휴양'(26%)을 가장 많이 택했다.

신성장 동력 사업에 대한 적합성을 묻으니 '물류산행복술 조성'이 평균 7.4점을 받으며 가장 적합성이 높게 평가됐으며, '원전체제연구소 서부본부 설립·유치'(7.3), '해상풍력 기반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7.3), '백수 해안도로 활용 휴양지(위케이션 타운) 조성'(7.1) 등이 뒤를 이었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kwangju.co.kr

11일 무안서 '베리어프리 음악극-친절한 돼지씨' 무대

무안군이 고령자나 장애인에게 장벽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베리어프리 음악극-친절한 돼지씨'를 오는 11일 두 차례 무대에 올린다.

이날 공연은 무안 송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30분 두 차례 진행된다.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23 공연유통협력지원 공

모사업'에 선정돼 공연이 추진된다. 무안을 시작으로 인천, 강원, 부산, 안성, 논산, 부산 금정구, 대구 북구 등 8곳에서 잇따라 개최된다.

음악극 '친절한 돼지씨'는 신정민 작가가 쓰고 세종국악관현악단이 제작했다.

동화와 국악이 어우러진 공연에 소리꾼과 뮤지컬 배우, 수어 통역 배우, 국악 밴드 등이 무대를 꾸민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